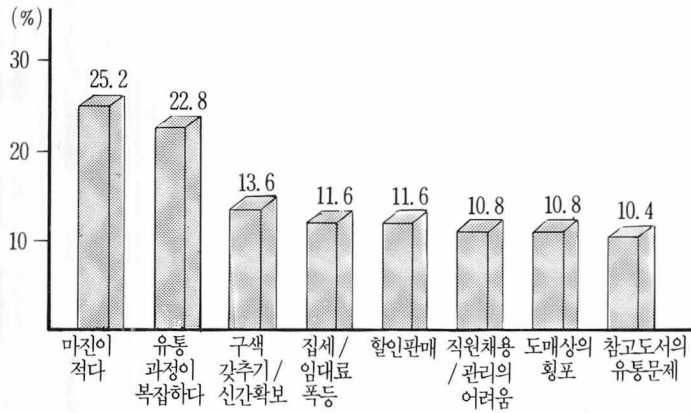


# 경영현대화 절감하나 개선노력은 미흡

문화부 조사 「전국서점업 경영실태」



●서점운영의 문제점

전국서점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서점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 실태조사가 문화부에 의해 실시, 유통구조를 비롯한 서점업 전반의 문제에 관한 기초자료로 제시됐다. 이번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소가 지난해(10. 17~23) 전국 6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서점경영자 250명을 표본추출, 41문항에 걸쳐 질문지 조사를 함으로써 이뤄졌다. 조사내용은 크게 고객실태와 서점운영실태, 도서유통문제와 관련단체평가 그리고 서점업 발전을 위한 제의견 등으로 분류된다.

## 소매점 형태운영, 참고서·단행본 판매가 주류

우선 서점고객실태에서 드러나는 하루평균 고객수는 50~100명 미만(34.8%) 정도로 나타났다. 책을 사는 연령층은 고등학생 이하의 연령(38.3%)이 많았고 남자(47.3%)보다 여자(52.7%)가 다소 많았다. 여러종류를 종합적으로 취급(90%)하는 서점이 대부분이었으며, 주로 소매점(72.4%)의 형태로서 한달 평균 500~1000만원 미만(28.8%)의 판매액을 보였다. 참고서(44.4%)와 단행본(42.4%)의 판매가 주류인데 이들의 마진율은 낮다(81.6%)고 생각하는 응답이 많았다. 한편 서점은 25.6%만이 자가소유이고 나머지는 전·월세(74.4%)였으며 매장면적(평균 36.8평)과 창고면적(평균 31.3평)도 대부분 소규모였다. 전집류를 제외한 모든 도서에서 정가할인판매하는 것(90% 이상)으로 나타났지만, '정가판매만 해야 한다'(84.4%)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. 또한 많은 서점들이 운영상 '마진이 적다'(25.2%)와 '유통과정이 복잡하다'(22.8%)는 문제점을 꼽았고, 서점을 새로이 개점하는 것도 타업종에 비해 어렵다(56.8%)는 견해가 지배

적이었다.

서점의 경영자 자신은 현재의 직업에 대해 대체로 만족(매우+만족하는 편 40.4%)하는 편이었고 30대 이하 저연령층(30대 이하: 46.6%, 40대 이상: 32.8%)과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(고졸 이하: 35.2% 대졸 이상: 47.9%), 그리고 15평 이상 큰 규모의 매장(51.7%)을 지닌 서점 도소매겸업층(50.7%)에서 높게 나타났다. 한편 서점인들의 경력은 5년 이하(32.8%) 6~10년(29.2%) 등 10년 이하가 대부분인데 대졸 이상(55.1%) 30대이하(81.7%)의 저연령 고학력층이 많았다.

도서를 구입하는 경로는 아동도서(37.2%)와 전문서(32%)는 출판사에서 직접, 전집(14.8%)류는 서울 동대문의 도매서점, 단행본(28.8%)은 일반도매서점에서, 참고서(34.8%)와 잡지(47.6%)는 총판에서 주로 구입하여 차이를 보였다. 구입시 마진율은 17~27% 정도였는데, 소량주문일 수밖에 없는 전문도서가 가장 낮았다. 대금지불은 아동도서·단행본·참고서·전문서적·잡지의 경우 60~70%가 외상어음지불인 반면 전집류는 오히려 현금지불이 53.4%로 더 높았다. 한편 외상어음 지불율은 50% 안팎이었으며 대부분 3개월이내(67.7%) 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반품기간은 전문도서를 제외한 나머지 도서의 반수 정도가 6개월 이내(30~50%)에 반품하고 있어 매년 개정판이 나오는 참고도서와 인기도가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단행본의 반품이 높고, 아동도서나 전문도서와 같이 인기와 관계가 없는 도서가 상대적으로 반품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.

서점인들의 대다수(89.6%)는 현재의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의 개선안으로

중대형도매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(66.4%)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. 그 이유로는 유통질서의 확립(36.1%)과 도서구입이 효과적(34.3%)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'높은 마진'(7.8%) '독자를 위하여'(3.0%)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. 또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'현행에 만족'(28.3%)하거나 '독점되므로'(28.2%), 특성에 맞는 도매점 이용이 편리(10.9%)하다는 의견과 참고서 채택에 문제(4.3%), 출판사와 직거래하고 있어서(4.3%) 등의 이유를 들었다.

## “중대형 도매기구 설립으로 유통질서 개선을”

한편 중대형도매기구의 설립방안으로는 단일대형도매기구(24%)보다 지역별 도매기구(66.4%)의 설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중대형도매기구가 불필요한 이유로 '독점'을 우려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였다. 단일대형도매기구를 설립할 경우 중앙의 도매기구가 각 지역별로 지방지사를 두는 것(54.4%)이 좋다고 했으며, 지역별 도매기구를 설립한다면 중앙연합체(56.4%)를 두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했다.

서점인들은 4명중 3명꼴로 서점업 관련단체에 가입하고 있어 가입율이 매우 높았는데, 가입율은 계층별로 차이를 보여 서점업 종사경력 11년 이상으로 오래된 고연령층에서 가입율이 높았다. 이들의 대부분(92.2%)이 전국서적상조합연합회에 가입하고 있었다. 관련단체에 내는 월회비는 5천~1만원 미만(43.3%) 정도가 많아서 평균 9,659원이었는데 월 매출액이 1천만원 이상, 매장크기 15평 이상의 서점인이 비교적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서점인들의 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서적상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전문성은 그다지 없지만(40.4%) 서적상들을 위해 노력(매우+다소)은 하고 있다(60.8%)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이해관계가 얽힌 한국출판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(52%)가 높아 유통 및 신간구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서점인들의 불만이 드러나고 있다.

## 외국서점과의 경쟁력, 서점전산화도 필요

서점업 전반에 대한 경기평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좋지 않다(72%)는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며, 향후 서점업의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(25.6%)보다는 대부분 현상유지(43.6%) 또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

(30.8%) 보고 있어 현재의 경기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경기전망도 희망적이지 않았다. 특이한 것은 30대 이하 젊은 서점인층(32.8%)과 서점업에 뛰어들어 10년 이하의 짧은 경력을 지닌 층(29%)이 상대적으로 향후 서점업의 경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왕성한 의욕을 보였다.

서점인들 대부분(66.8%)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나라 서점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는데, 30대 이하의 젊은 층(74%), 대졸이상의 고학력층(73.4%)과 소매업층(69%)에서 그 우려의 도가 약간씩 더 높았다. 따라서 서점업계의 수입개방이 이뤄질 경우 대도시 대형서점부터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(35.6%)이 비교적 많았으며 외국서점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(5~10년: 35.6%, 11년 이상: 14.8%)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.

현재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서점은 극히 일부(7.2%)였으나 서점전산화의 필요성은 대부분(68.4%) 인식하고 있었다. 하지만 서점인의 과반수 이상이 서점전산화의 기초가 되는 ISBN이나 POS라는 용어를 전혀 모르고 있어 그 구체적인 방법의 탐색에 대한 의지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 국내 대형서점의 지점설치에 대해서는 대부분(78.4%) 반대사를 표명했으며 그 이유는 영세서점의 피해에 대한 우려(73.5%)와 대자본에 의한 종속화(16.3%)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. 한편 지점설치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독자편의 제공(37.5%), 원활한 도서유통(15.6%) 독서인구의 저변확대(9.4%) 등 다양하게 지적됐다.

서점이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선 부정과 긍정이 반반정도였고, 서점이 문화공간으로서 보다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매장공간의 확대(30%) 책을 읽을 수 있는 휴식공간(8%)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, 다양한 서적구비(3.6%) 좋은책 선별판매(2.4%) 신속한 출판정보서비스(2%)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많지 않아 현재 서점에서는 절대적인 공간확대가 우선적임을 드러냈다. 마지막으로 서점인들은 정부에 대해 운영자금지원(10%) 정찰제관매정책(9.2%) 마진율조정(8.8%) 유통구조개선(8.4%) 참고서채택의 부조리해결(7.2%) 독서인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(4.8%) 등의 요구가 다양하게 표출됐다.